

#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웃으니 기뻐요”



## 신행현장

코미디언 이정표씨 자비행



20년간 노인들의 곁에서 살아온 이정표씨, 그는 경로잔치와 함께 환경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잊지 않는다.

연예인이지만 무명의 생활을 10여 년 넘게 했고, 그 와중에서 부모님께 효도 한번 제대로 하지도 못했다. 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그의 어머니는 출가는 하지 않았지만 충주에 원벌사라는 개인 암자를 짓고 수행할 만큼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원력이나 수행을 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왔고, 기회 있을 때마다 어머니께 불법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고통을 보아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눈을 뜨게 되자 내게 닥친 어려움은 쉽게 인내할 수 있었지요.”

그 후 전국단위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받은 이 씨는 KBS 공채 코미디언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 씨는 이 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부처님께 받은 만큼 이웃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머니께 불법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고통을 보아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눈을 뜨게 되자 내게 닥친 어려움은 쉽게 인내할 수 있었지요.”

그 후 전국단위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받은 이 씨는 KBS 공채 코미디언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 씨는 이 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부처님께 받은 만큼 이웃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머니께 불법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고통을 보아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눈을 뜨게 되자 내게 닥친 어려움은 쉽게 인내할 수 있었지요.”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a.com

지난 11일 경북 영주 (사정수한 방병원 앞마당에서 한바탕의 잔치가 벌어졌다. 지역 노인 250여 명이 찾은 이날 잔치에서 코미디언(희극 배우의 직살에, 혹은 비슷한 연배의 친구 아닌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재미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미디언 이정표입니다. 오늘 영주 지역 할아버님과 할머니를 모시게 된 것도 부처님의 인연이 아니겠습니까?”라는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경로잔치는 연예인 공연과 노인 장기장 등 프로그램으로 오후 4시까지 계속됐다.

이 경로잔치의 시작에서 회화까지에는 이정표(48) 씨가 있었다. 매년 5월에 열리는 (사정수한방병원 ‘경로잔치’의 준비와 진행을 이 씨가 맡았기 때문이다.

“신심이 있으면 신명이 나고, 신명이 일면 제 몸을 던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경로잔치의 무대에 섰지만, 저는 이 무대를 단순한 무대로 생각하지 않고, 자비행을 수행하는 공간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10여 명의 연예인과 함께 움직이고 있지만 많은 이익도 바라지 않는다. 굶지 않을 정도의 돈 외에는, 그가 무대에서 마주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희망한다. 그렇다고 이 씨와 함께 행사장을 찾은 연예인들이 이를 문제시하지도 않는

다. 대부분 오랫동안 이 씨의 신행 활동을 꼭 지켜보면서 불교에 귀의한 동료들이기 때문이다.

이 씨는 봉사활동은 경로잔치에서 끝나지 않는다. 도선사 환경보호 캠페인에서 수천 교도소 위문이며, 작심자 봉사, 청소년 선도까지 그 분야가 다양하다. 물론 동료 연예인 역시 이 씨의 봉사활동에 거의 빠지지 않고 사찰이나 교도소 등을 찾아 묵묵히 함께 자비행을 한다.

이 씨가 이끌고 있는 연예인 봉사

다. 대부분 오랫동안 이 씨의 신행 활동을 꼭 지켜보면서 불교에 귀의한 동료들이기 때문이다.

이 씨는 봉사활동은 경로잔치에서 끝나지 않는다. 도선사 환경보호 캠페인에서 수천 교도소 위문이며, 작심자 봉사, 청소년 선도까지 그 분야가 다양하다. 물론 동료 연예인 역시 이 씨의 봉사활동에 거의 빠지지 않고 사찰이나 교도소 등을 찾아 묵묵히 함께 자비행을 한다.

이 씨가 이끌고 있는 연예인 봉사

다. 대부분 오랫동안 이 씨의 신행 활동을 꼭 지켜보면서 불교에 귀의한 동료들이기 때문이다.

이 씨는 봉사활동은 경로잔치에서 끝나지 않는다. 도선사 환경보호 캠페인에서 수천 교도소 위문이며, 작심자 봉사, 청소년 선도까지 그 분야가 다양하다. 물론 동료 연예인 역시 이 씨의 봉사활동에 거의 빠지지 않고 사찰이나 교도소 등을 찾아 묵묵히 함께 자비행을 한다.

이 씨가 이끌고 있는 연예인 봉사

다. 대부분 오랫동안 이 씨의 신행 활동을 꼭 지켜보면서 불교에 귀의한 동료들이기 때문이다.

이 씨는 봉사활동은 경로잔치에서 끝나지 않는다. 도선사 환경보호 캠페인에서 수천 교도소 위문이며, 작심자 봉사, 청소년 선도까지 그 분야가 다양하다. 물론 동료 연예인 역시 이 씨의 봉사활동에 거의 빠지지 않고 사찰이나 교도소 등을 찾아 묵묵히 함께 자비행을 한다.

이 씨가 이끌고 있는 연예인 봉사

다. 대부분 오랫동안 이 씨의 신행 활동을 꼭 지켜보면서 불교에 귀의한 동료들이기 때문이다.

이 씨는 봉사활동은 경로잔치에서 끝나지 않는다. 도선사 환경보호 캠페인에서 수천 교도소 위문이며, 작심자 봉사, 청소년 선도까지 그 분야가 다양하다. 물론 동료 연예인 역시 이 씨의 봉사활동에 거의 빠지지 않고 사찰이나 교도소 등을 찾아 묵묵히 함께 자비행을 한다.

이 씨가 이끌고 있는 연예인 봉사

다. 대부분 오랫동안 이 씨의 신행 활동을 꼭 지켜보면서 불교에 귀의한 동료들이기 때문이다.

이 씨는 봉사활동은 경로잔치에서 끝나지 않는다. 도선사 환경보호 캠페인에서 수천 교도소 위문이며, 작심자 봉사, 청소년 선도까지 그 분야가 다양하다. 물론 동료 연예인 역시 이 씨의 봉사활동에 거의 빠지지 않고 사찰이나 교도소 등을 찾아 묵묵히 함께 자비행을 한다.

이 씨가 이끌고 있는 연예인 봉사

다. 대부분 오랫동안 이 씨의 신행 활동을 꼭 지켜보면서 불교에 귀의한 동료들이기 때문이다.

이 씨는 봉사활동은 경로잔치에서 끝나지 않는다. 도선사 환경보호 캠페인에서 수천 교도소 위문이며, 작심자 봉사, 청소년 선도까지 그 분야가 다양하다. 물론 동료 연예인 역시 이 씨의 봉사활동에 거의 빠지지 않고 사찰이나 교도소 등을 찾아 묵묵히 함께 자비행을 한다.

이 씨가 이끌고 있는 연예인 봉사

다. 대부분 오랫동안 이 씨의 신행 활동을 꼭 지켜보면서 불교에 귀의한 동료들이기 때문이다.

이 씨는 봉사활동은 경로잔치에서 끝나지 않는다. 도선사 환경보호 캠페인에서 수천 교도소 위문이며, 작심자 봉사, 청소년 선도까지 그 분야가 다양하다. 물론 동료 연예인 역시 이 씨의 봉사활동에 거의 빠지지 않고 사찰이나 교도소 등을 찾아 묵묵히 함께 자비행을 한다.

이 씨가 이끌고 있는 연예인 봉사

다. 대부분 오랫동안 이 씨의 신행 활동을 꼭 지켜보면서 불교에 귀의한 동료들이기 때문이다.

이 씨는 봉사활동은 경로잔치에서 끝나지 않는다. 도선사 환경보호 캠페인에서 수천 교도소 위문이며, 작심자 봉사, 청소년 선도까지 그 분야가 다양하다. 물론 동료 연예인 역시 이 씨의 봉사활동에 거의 빠지지 않고 사찰이나 교도소 등을 찾아 묵묵히 함께 자비행을 한다.

이 씨가 이끌고 있는 연예인 봉사

다. 대부분 오랫동안 이 씨의 신행 활동을 꼭 지켜보면서 불교에 귀의한 동료들이기 때문이다.

이 씨는 봉사활동은 경로잔치에서 끝나지 않는다. 도선사 환경보호 캠페인에서 수천 교도소 위문이며, 작심자 봉사, 청소년 선도까지 그 분야가 다양하다. 물론 동료 연예인 역시 이 씨의 봉사활동에 거의 빠지지 않고 사찰이나 교도소 등을 찾아 묵묵히 함께 자비행을 한다.

이 씨가 이끌고 있는 연예인 봉사

다. 대부분 오랫동안 이 씨의 신행 활동을 꼭 지켜보면서 불교에 귀의한 동료들이기 때문이다.

이 씨는 봉사활동은 경로잔치에서 끝나지 않는다. 도선사 환경보호 캠페인에서 수천 교도소 위문이며, 작심자 봉사, 청소년 선도까지 그 분야가 다양하다. 물론 동료 연예인 역시 이 씨의 봉사활동에 거의 빠지지 않고 사찰이나 교도소 등을 찾아 묵묵히 함께 자비행을 한다.

이 씨가 이끌고 있는 연예인 봉사

다. 대부분 오랫동안 이 씨의 신행 활동을 꼭 지켜보면서 불교에 귀의한 동료들이기 때문이다.

이 씨는 봉사활동은 경로잔치에서 끝나지 않는다. 도선사 환경보호 캠페인에서 수천 교도소 위문이며, 작심자 봉사, 청소년 선도까지 그 분야가 다양하다. 물론 동료 연예인 역시 이 씨의 봉사활동에 거의 빠지지 않고 사찰이나 교도소 등을 찾아 묵묵히 함께 자비행을 한다.

이 씨가 이끌고 있는 연예인 봉사

다. 대부분 오랫동안 이 씨의 신행 활동을 꼭 지켜보면서 불교에 귀의한 동료들이기 때문이다.

이 씨는 봉사활동은 경로잔치에서 끝나지 않는다. 도선사 환경보호 캠페인에서 수천 교도소 위문이며, 작심자 봉사, 청소년 선도까지 그 분야가 다양하다. 물론 동료 연예인 역시 이 씨의 봉사활동에 거의 빠지지 않고 사찰이나 교도소 등을 찾아 묵묵히 함께 자비행을 한다.

이 씨가 이끌고 있는 연예인 봉사

다. 대부분 오랫동안 이 씨의 신행 활동을 꼭 지켜보면서 불교에 귀의한 동료들이기 때문이다.

이 씨는 봉사활동은 경로잔치에서 끝나지 않는다. 도선사 환경보호 캠페인에서 수천 교도소 위문이며, 작심자 봉사, 청소년 선도까지 그 분야가 다양하다. 물론 동료 연예인 역시 이 씨의 봉사활동에 거의 빠지지 않고 사찰이나 교도소 등을 찾아 묵묵히 함께 자비행을 한다.

이 씨가 이끌고 있는 연예인 봉사

다. 대부분 오랫동안 이 씨의 신행 활동을 꼭 지켜보면서 불교에 귀의한 동료들이기 때문이다.

이 씨는 봉사활동은 경로잔치에서 끝나지 않는다. 도선사 환경보호 캠페인에서 수천 교도소 위문이며, 작심자 봉사, 청소년 선도까지 그 분야가 다양하다. 물론 동료 연예인 역시 이 씨의 봉사활동에 거의 빠지지 않고 사찰이나 교도소 등을 찾아 묵묵히 함께 자비행을 한다.

이 씨가 이끌고 있는 연예인 봉사

다. 대부분 오랫동안 이 씨의 신행 활동을 꼭 지켜보면서 불교에 귀의한 동료들이기 때문이다.

이 씨는 봉사활동은 경로잔치에서 끝나지 않는다. 도선사 환경보호 캠페인에서 수천 교도소 위문이며, 작심자 봉사, 청소년 선도까지 그 분야가 다양하다. 물론 동료 연예인 역시 이 씨의 봉사활동에 거의 빠지지 않고 사찰이나 교도소 등을 찾아 묵묵히 함께 자비행을 한다.

이 씨가 이끌고 있는 연예인 봉사

다. 대부분 오랫동안 이 씨의 신행 활동을 꼭 지켜보면서 불교에 귀의한 동료들이기 때문이다.

이 씨는 봉사활동은 경로잔치에서 끝나지 않는다. 도선사 환경보호 캠페인에서 수천 교도소 위문이며, 작심자 봉사, 청소년 선도까지 그 분야가 다양하다. 물론 동료 연예인 역시 이 씨의 봉사활동에 거의 빠지지 않고 사찰이나 교도소 등을 찾아 묵묵히 함께 자비행을 한다.

이 씨가 이끌고 있는 연예인 봉사

다. 대부분 오랫동안 이 씨의 신행 활동을 꼭 지켜보면서 불교에 귀의한 동료들이기 때문이다.

이 씨는 봉사활동은 경로잔치에서 끝나지 않는다. 도선사 환경보호 캠페인에서 수천 교도소 위문이며, 작심자 봉사, 청소년 선도까지 그 분야가 다양하다. 물론 동료 연예인 역시 이 씨의 봉사활동에 거의 빠지지 않고 사찰이나 교도소 등을 찾아 묵묵히 함께 자비행을 한다.

# 주제가 있는 법문

## “소원 비는 기도 그만하고 마음뉘는 정진 합시다”

우리 불자들은 가슴속에 항상 마음의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도 멀리 있는 강이나 바다, 산에서만 부처님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가만 갈수록 내속에 있는 불성은 아득히 멀어져가고 어느 누가 불교에 대해 물어면 막연해지는 것입니다.

경전에 ‘제악막작(諸惡莫作) 중선봉행(衆善奉行) 자정기(自淨其意) 시제불교(是諸佛敎)’라고 했습니다. 내 자신이 악을 짓지 않고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고 스스로 그 뜻을 새롭게 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는 말입니다. 즉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심(心) 즉 불(佛).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 내 마음이 부처임을 깨닫고 우주 진리를 깨치는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성불의 첩

경이라는 것이지요. 법구경 제1계송을 보면 ‘마음을 근본삼고 마음이 주(主)가 된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육조스님의 말씀에도 ‘마음하나 미혹하면 중생이고, 마음하나 깨치면 부처이다’고 했습니다.

불교는 철두철미하게 마음을 닦는 수행입니다. 깨달음을 최고 목표로 삼는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무수한 문이 있습니다. 마치 세상의 길에 험난한 길 쉬운 길이 있어서 육도를 걷기는 어렵고 수로를 배로 가면 쉬운 것 같이, 보살의 길에도 엄밀한 경 기도 주력 참선 등 자신의 근기에 따라 여러 방향의 문을 통해 해탈로 가는 길은 많습니다.

오늘은 업장소멸과 선업을 쌓는 운 사물에 많이하는 기도에 대해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기도는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지극한 수행법의 하나입니다. 본래 갖추어져 있는 불성을 회복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맑게 하고,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관세음보살님처럼 지장보살님처럼 남 위한 삶 서원

경이라는 것이지요. 법구경 제1계송을 보면 ‘마음을 근본삼고 마음이 주(主)가 된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육조스님의 말씀에도 ‘마음하나 미혹하면 중생이고, 마음하나 깨치면 부처이다’고 했습니다.

불교는 철두철미하게 마음을 닦는 수행입니다. 깨달음을 최고 목표로 삼는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무수한 문이 있습니다. 마치 세상의 길에 험난한 길 쉬운 길이 있어서 육도를 걷기는 어렵고 수로를 배로 가면 쉬운 것 같이, 보살의 길에도 엄밀한 경 기도 주력 참선 등 자신의 근기에 따라 여러 방향의 문을 통해 해탈로 가는 길은 많습니다.

오늘은 업장소멸과 선업을 쌓는 운 사물에 많이하는 기도에 대해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기도는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지극한 수행법의 하나입니다. 본래 갖추어져 있는 불성을 회복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맑게 하고,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관세음보살님처럼 지장보살님처럼 남 위한 삶 서원

경이라는 것이지요. 법구경 제1계송을 보면 ‘마음을 근본삼고 마음이 주(主)가 된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육조스님의 말씀에도 ‘마음하나 미혹하면 중생이고, 마음하나 깨치면 부처이다’고 했습니다.

불교는 철두철미하게 마음을 닦는 수행입니다. 깨달음을 최고 목표로 삼는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무수한 문이 있습니다. 마치 세상의 길에 험난한 길 쉬운 길이 있어서 육도를 걷기는 어렵고 수로를 배로 가면 쉬운 것 같이, 보살의 길에도 엄밀한 경 기도 주력 참선 등 자신의 근기에 따라 여러 방향의 문을 통해 해탈로 가는 길은 많습니다.



혜우스님  
의정부 호암사 주지

것이 기도를 하는 목적입니다. 불자의 기도는 마땅히 마음뉘는 것으로서 그 근본을 삼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도방법도 소원을 비는 행태를 지양하고, 마음 닦는 기도로 급히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원은 이기적인 욕심이 아닌, 참다운 자기 전환을 위한 공통적인 바람을 뜻합니다. 오직 나만을 위한 발원이 아닙니다. 이웃과 인류전체를 위한 기원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남을 위한 기도는 곧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관계되어 있어서 나 혼자만 살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불행하면 나도 불행해 지지요.

발원 가운데 불자들이 가장 많이 듣고 외치는 것이 사후생원일 것입니다. 먼저 자기 마음을 제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외부의 중생도 제도하겠다는 발원이지요.

또 관음기도와 지장기도가 있습니다. 관음기도를 할 때는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 가서 힘껏 도와주겠다’고 발원하십시오. 관세음보살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사정할 것이 아니라 관세음보살님처럼 자비심을 갖고 베풀며 살겠다는 서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장기도 발원도 어렵고 고통받는 이가 있다면 내 힘껏 도와주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기도는 부처님께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발원을 다져나가는 것임을 인식하고 실천해야 참기도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신행 캘린더

5월 31일(목)  
■ 불교상당개발원 세미나=불교상당 개발원은 봉선사에서 6월 1일까지 ‘산사에서 만나는 불교와 상담-성상담, 바로 바로 받기’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02)737-8803  
■ 부산정토회 초청 강연=부산정토회는 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에 ‘우리의 몸, 생명 그리고 먹거리’를 주제로 푸른누리공동체 최한실 대표의 초청 강연회를 마련한다.(051)557-6372

6월 2일(토)  
■ 노인선원 수계법회=노인선원은 오전 10시, 오후 5시 두 차례에 걸쳐 대법당에서 고산스님을 전제회상으로 모시고 제3회 ‘보살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한다.(02)577-5800  
■ 터사랑 답사여행=터사랑은 오후 2시부터 서울 덕수궁과 공경유물전시관, 금융박물관 등을 답사한다.(02)725-1284  
■ 전국어린이지도자 연수회=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는 오후 6시부터 3일 오후 1시까지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제31차 전국어린이지도자 연수회를 실시한다.(051)808-4569  
■ 청년정토회 덕유산 등반대회=청년정토회는 ‘2001 백두대간 덕유산’을 주제로 전국청년불자등반대회를 3일까지 덕유산에서 개최한다.(02)587-8994  
■ MBTI 집단활동 강좌=자양사회복지관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나를 알면 아이가 보인다’를 주제로 ‘MBTI 집단활동’ 강좌를 실시한다.(02)458-1664

6월 3일(일)  
■ 동산문화회 육바리밀 대법회=동산문화회는 10일까지 육바리밀대법회 및 수계식을 봉행한다. 매일 오후 2시, 마지막 날은 오전 11시에 시작된다.(02)732-1206  
■ 석불선양회 친견법회=한국석불선양회는 충남 아산 봉당사 약사여래불(보물)과 인근 인근 마북부처(민속자료)를 찾아 친견법회를 봉행한다.(02)996-7945

6월 5일(화)  
■ 옥수복지원 태고강좌=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오전 11시 박성화 박사(원광대 미술대학원 강사)를 초청해 ‘태고 미술’이라는 주제로 강좌를 시작한다.(02)2282-1100

6월 6일(수)  
■ 정토사 법회=청계산 정토사는 만일염불경사회 창립 1주년을 맞아 오전 10시 30분 직지사 조실 녹원스님 초청 대법회를 봉행한다.(031)723-9797

### 생활속의 불교

#### 허공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다. 육신의 고통이나 정신적인 번민도 세월이 흐르다 보면 가라앉게 되고, 사무치면 그리움도 시들하게 되어 그러저러 견딜 만 해진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라. 한편으로는 내성이 생긴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체념하게 되거나 감정이 바래진 것이다.

‘좀더 냉각기를 두고 생각해 보자’, ‘내일 다시 생각하자’는 것은 바로 이 시간이라는 약방문이 제법 유효한 줄을 알기 때문에 내리는 처방이다.

오늘의 시간은 ‘시간이 약’은 아니다. 그 말의 뜻은 다른데 ‘시간을 벌고 보면 생각이 바뀔 것’이라는, 우리들 의식작용의 속성을 꼬집은 것이다.

오늘의 시간이 아니라 한 생각이다. 가령 누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해 왔을 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응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 ‘그래, 내게도 잘못이 있었겠지. 그는 나를 일깨워 주려고 재촉을 든 것뿐이야.’ 할 수도 있다.

시간이 흘러 생각이 바뀌는 걸 보면 구태여 시간에 기댄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생각 돌려 보는 게 더 현명할지도 모른다.

우리의 의식세계란 따지고 보면 서툰이치도 안되는 지식에 의지하고 있다. 그나마도 한 번 받아들이는 지식은 좀더 수정하지 않으려는 고정관념이다. 고정관념은 또 반드시 어떤 일을 동반한다. 그러다 보니 유연한 사고, 열린 사고를 할 수가 없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사랑분별의 경계를 넘어서는 참지혜의 길을 제시하셨다. 육심·성념·어리석음을 세 가지 독이라고 하셨고, 그런 삼독심과 나를 포함한 일체의 형상에 대한 집착을 여의면 해탈에 이른다 하셨다.

관념이란 실은 실체가 없는 허공 같은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관념의 벽을 두텁게, 높게 쌓아올리고 있다. 그리고는 스스로 그 속에 가두기도 하여, 그 관념에 걸려서 스스로를 넘어뜨린다. 우리들은 허공에 갇힌 사람, 허공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인 셈이다. 한 생각 돌려 거거서 벗어나는 지혜의 길은 불법 속에 있다.

龍眼

### "불기건강비법 신비의효능"

##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뵈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밑 불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살시다. 프로에서 불기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야 한계를 타재로 하여(한박스 60포)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 이 효능은(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 거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게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이며 풍에발 및 기력을 돌우어 주어 신장(腎臟)을 튼튼하게 하여 피로를 제거하며 건강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공명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과 당뇨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숙취를 해소한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463번지  
중미산 불심정사 전화번호 : (031) 771-1571

※ 마가목은 복수인 위양이 있으므로 불기의 비법이 있습니다. (016) 222-7701  
보시금은 불심정사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정강 대 진 입장

### 미말라야 지산암 인증불사

✖ 일인당 한 봉 · 월 오천원  
✖ 동참구자  
· NEPAL GRINDLAYS BANK LIMITED  
· 102-0514136-251 EUNG LIP LEE  
· 국민은행 062-21-0578-835 이응립

✖ 우편주소  
· P.O BOX 4930 KATHMANDU NEPAL

✖ 지산암 위치  
· TAPOBAN NAGARAJUNA HILL, KATHMANDU

✖ HOTMAIL  
· JEESAN HIMALAYA@HOTMAIL.COM

#### 네팔국 미말라야 지산암 암주 지산 합장

### 현시대의(火)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 성인병의 신호한 石楠葉(석남엽)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기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기 증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 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도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정기의 염증등 전제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이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히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함을 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기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기 약초를 버려두고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들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 특히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하면
- 빈혈, 저혈압, 신경성질환, 간염, 간경화, 기관지 천식
- 뼈가 약하며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
- 각종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분, 불임증, 산후병
- 성욕감퇴, 유정, 정지결핍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분)

“보시금은 백록청사 불사기금에 쓰여집니다.”

#### 상담문의 : 053-652-3300